

# 《세종실록》분석을 통한 한글 창제 과정의 재검토

이상규\*

|| 차례 ||

- I. 서론
- II. 《세종실록》편찬 과정과 이본
- III. 《세종실록》의 내용 분석
- IV. 실록본과 《훈민정음》해례본의 변개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세종실록》의 실증적 근거를 존중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 가운데 1) 훈민정음 창제 일자와 창제자 문제, 2) ‘언문’과 ‘훈민정음’ 그 명칭, 3) 《훈민정음》해례본의 반포설, 4)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做古篆)와 한글 창제 기원설, 5)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의 해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순차적 방식으로 사료를 검토하여 한글 창제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는 예의에서 해례본과 언해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청탁의 배열이나 오음의 음계 배열 차이와 종성 표기나 한자음 표기를 위한 상당한 변개 과정을 거친 계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한글, 훈민정음, 언문, 한글 창제

---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 서론

한글 창제와 관련된 일차 사료는 세종 25(1443)년 계해 기사와 세종 28(1446)년 병인 실록 기사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더 이상의 유의미한 논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세종실록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정밀하게 분석 검토되었다. 그러나 사료의 해석 방법의 시각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증을 위한 2차적 실증 사료의 취사선택의 방법에 따라 시각 차이는 뚜렷하다. 곧 훈민정음 창제 목적, 창제자와 반포 문제, 한글 자형 기원 등의 논란뿐만 아니라 일부 왜곡되거나 과장된 논의도 없지 않았다. 학문적 논쟁은 학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글 창제 정신을 훼손시킬 정도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훈민정음 연구 결과는 많은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종실록》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한글 창제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학계의 이론들에 대한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글 창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당대의 사료로는 실록 자료 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후대의 2차 사료를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추론과 억측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한글 창제의 목적이 한자음 표기를 위한 것이었다, 한글 창제 과정은 왕실을 둘러싸고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당시 세종의 건강상태가 나빠 한글 창제에 관여하지 못했다, 세종 28년에 한글을 반포하였다, 한글의 글꼴이 고전체나 파스파문자를 모방하였다는 등, 실증주의적 방법의 한계와 함께 사료 부족에 의한 추론과 억측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주제는 이미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들을 검토해 보면 한글 창제 정신을 심하게 훼손시킨 수준에 있는 논의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의 기본 바탕인 예의를 토대로 하여 집현전 학사와 함께 종성 규정과 한자음 표기 등을 보완하여 해례본을 완성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의 완성과 함께 치성 규정을 보충하여 언해본을 만드는 일련의 계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광호(2008) 교수와 같이 회귀적 방식에서 해례본 완성 이후에 예의가 만들어졌다는 접근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순차적 방식으로의 창제 과정을 둘러싼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정인지 서문에서 밝힌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라는 내용을 고려하면 세종 25(1443)년에 이미 언문 28자는 완성되었으며, 이때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제시했던 것이 예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 관점에서 그 변개를 조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연구에서 해례본과 언해본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동안 예의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소홀했던 감이 없지 않다. 예의를 단순히 해례본 본문에 붙어 있는 일부로 간과함으로써 예의에 실린 언문 28자에 대한 글자꼴과 음가를 언해본의 표기 방식으로 하거나 실록에 실린 예의 이본들을 단순히 글자 오류나 누락의 차이가 있는 이본 정도로만 인식해 온 것이다. 곧 예의라면 당연히 해례본의 본문에 실린 것쯤으로 생각해 온 결과이다. 세종 28(1446)년 세종이 세종실록을 통해 발표한 예의는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대내외에 최초로 알린 기록이지만 이것은 이미 세종 25년경에 초안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초안 실록본이 해례본 본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표가 되었고 또 원본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순차적 접근 방식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세종 25(1443)년 한글 창제 이후 3년 동안 세종은 집현전 학사 8인과

함께 어제 예의를 토대로 하여 이론적 근거를 확대 해설하여 세종 28(1446)년에 해례본을 책으로 완성하였다. 한글의 완성 과정은 예의에서 해례본으로 그 이후 언해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을 지으면서 완결되지 않았던 종성 표기 규정이나 한자음 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일련의 계기적인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글 창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예의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글 창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종실록》에 실린 창제 경과에 대한 기사는 비록 간략하지만 가장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1차 사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후대의 개인 문집 등에 실린 2차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 경과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연구 성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맹점은 한자를 존중하는 시각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시각 차이를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한글은 《동국정운》을 만들기 위한 연습장 구실을 했다는 관점 아래 한글이 한자음 표준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논의들이 아직도 당당한 권위를 잃지 않고 있다. 또한 ‘其字倣古篆’의 해독 문제와 더불어 특히 한글의 자형 기원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기되었다. 심지어 예의는 해례본 완성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논의로 발전되면서 세종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기본 정신이 희석되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한글 창제와 관련된 사료의 절대 부족으로 실증적 기술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사료를 넘어 서있는 한글 창제 경위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획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고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는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의 기사와 세종 28(1446)년 병인 9월 상한(上澣)에 쓴 《세종실록》자료와 세종 28(1446)년 병인 9월 상한(上澣)의 기사 내용은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

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라는 아주 짝막한 도입부와 함께 예의로 알려진 본문에 한정하여 새로운 재해석과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 II. 《세종실록》편찬 과정과 이본

### 1. 《세종실록》편찬 과정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먼저 《세종실록》자료를 1차적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록의 편찬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편찬은 경태 3년 곧 문종 2(1452)년 3월부터 동 5(1455)년에 걸쳐 3년 동안 춘추관의 감관사 정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58명의 사관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당시 춘추관에서 《세종실록》편찬을 위한 찬수관의 구성과 참여자는 아래 <표-1>과 같다.<sup>1)</sup>

<표-1> 《세종실록》편찬 찬수관 구성과 참여 인사

감관사	1인	정인지
지관사	3인	김조, 이계전, 정창손
동지관사	2인	신석조, 최항
편수관	4인	박팽년, 어효철, 하위지, 성삼문
기주관	23인	신숙주, 조어, 김맹현, 이석형, 김예몽, 신전, 양성지, 원효연, 김득배, 윤사운, 이보흠, 이에, 김인민, 유성원, 김지경, 김한계, 권효량, 이극감, 조근, 최사로, 이함장, 최한경
기사관	25인	김명중, 서강, 성희, 김필, 이익, 이효장, 홍약치, 강미수, 유자문, 이계전, 이문경, 이유의, 전효우, 이윤인, 김용, 한서봉, 박찬조, 윤사영, 이제림, 권윤, 민정, 권이경, 김경광, 이문환, 최한보

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부록에 실린 ‘편수관 명단’을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조선왕조실록》 참조.

《세종실록》찬수를 총괄한 이는 정인지이며, 동지관사 최항과 편수관으로 성삼문,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편찬을 주관하였던 신숙주가 기주관으로 역할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훈민정음》해례본 제작을 비롯하여 후속적인 운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상당수의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세종실록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기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446년 양성지의 상소로 을해자 활자본으로 제작하여 1472년에 춘추관과 3사고(충주, 전주, 성주)에 각각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 이외는 전부 소실되었다. 따라서 선조 대 1603년부터 1606년 사이 2년 10개월간에 걸쳐 전주 사고본을 이용하여 다시 목활자로 인간하였는데 그 신인본의 원본이 되었던 전주본(576권, 구인본)은 마니산 사고에 이관하여 보관하고 새로 인간한 목판본(259권, 신인본)은 춘추관을 비롯하여 태백산, 묘향산 사고에 분치하고 초고본 1질은 강릉의 오대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다시 병자호란(1636년)이 발발하자 구인본이 보관되어 있던 강화도 마니산 사고본이 다량 훼손 분실되었으며, 연이은 1653년 산불로 인해 실록 2책이 소실되었다.<sup>3)</sup>

2) 편찬 완료 후인 단종 2(1454)년 3월 30일에 편자에 참여한 인사들에게 포상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신사(辛巳)에 춘추관에서 세종대왕실록 163질을 만들어 올리니 감춘추관사 정인지, 지춘추관사 김조, 이계전, 정창손, 동지춘추관 최항 전 동지춘추관사 신석조 등에게 각각 옷감 표리 1건과 미구와 말 한 필을 하사하시고 편수관 신숙주, 박팽년, 어효철, 하위지, 전 편수관 김신민 등에게도 각각 옷감 표리 1건과 말 한필을 하사하시고 기주관 기사관에게는 품계를 한 계단 올려서 올린 품계대로 전날 벼슬에 병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석조, 신민 등은 그 당시 상을 만났으나 일찍이 실록 편록에 참여했으므로 아울러 하사한 것이다.(○辛巳/春秋館撰進 《世宗大王實錄》一百六十三帙。賜監館事鄭麟趾，知館事金銚·李季旬·鄭昌孫，同知館事崔恒，前同知館事辛碩祖，各表裏一件，鞍具馬一匹，編修官申叔舟·朴彭年·魚孝瞻·河緯地，前編修官金新民，各表裏一件，馬一匹，記注官，記事官，各加一資，仍許並用加資前仕日。碩祖，新民，時遭喪，以曾與編錄，并賜之。)” 《단종실록》단종 2(1454)년 3월 30일.

3)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부록에 실린 《세종실록》 ‘신인본(新件) 선대 실록 편

## 2. 《세종실록》두 이본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이다. 특히 《세종실록》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종실록》은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 2종이 현재 남아 있다. <태백산사고본>은 활자본이고 <정족산사고본>은 필사본이다. 신인본 간행 이후 구인본이 마니산 사고에 이관된 것인데 병자호란과 임란을 겪으며 <태백산사고본>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더 정확한 실록의 이전 관련 문제는 과제로 남겨 둔다.<sup>4)</sup>

---

수관 명단'을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조선왕조실록> 참조. “만력(萬曆) 임진의 변란에 춘추관과 성주·충주에 분장(分藏)했던 선대조(先代朝)의 실록은 모두 병화로 불타 버렸고, 전주에 소장했던 실록만이 병화를 면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해주(海州)로, 다음에는 영변(寧邊)으로 옮겼다가 다시 강화(江華)로 옮겨 봉안하였다. 상이 춘추관에 명하여 이 본에 의거하여 3질을 인출하고, 구인본(舊件)은 강화의 마니산에 보관하고 신인본(新件)은 춘추관과 안동의 태백산, 영변의 묘향산에 분장케 하였으며, 초본(草本) 1질은 강릉의 오대산에 보관하게 하였다. 구인본은 5백 76권이고 신인본은 각기 2백 59권인데 이는 책의 장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役事)는 계묘) 7월에 시작하여 병오 4월에 완성하였다. (萬曆壬辰之變, 春秋館及星州, 忠州分藏先朝實錄, 盡爲兵火所焚. 獨全州所藏獲免, 移安于海州, 又移安于寧邊, 又移安于江華. 上命春秋館, 依此本印出三件, 舊件則藏于江華之摩尼山, 新件則分藏於春秋館及安東之太白山, 寧邊之妙香山, 草本一件則藏于江陵五臺山, 舊件凡五百七十六卷, 新件各二百五十九卷, 粧結有大小故也. 是役起於癸卯七月, 終於丙午四月.)”, 《명종실록》부록.

4) “만력(萬曆) 임진(선조 25(1592)년)의 변란에 춘추관과 성주, 충주에 분장했던 선대조의 실록은 모두 병화로 불타 버렸고, 전주에 소장했던 실록만이 병화를 면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해주(海州)로, 다음에는 영변(寧邊)으로 옮겼다가 다시 강화로 옮겨 봉안하였다. 상이 춘추관에 명하여 이 본(전주 사고본)에 의거하여 3질을 인출하고, 구인본(舊件, 전주 사고본)은 강화의 마니산(摩尼山)에 보관하고 신인본(新件)은 춘추관과 안동의 태백산(太白山), 영변의 묘향산(妙香山)에 분장케 하였으며, 초본 1질은 강릉의 오대산에 보관하게 하였다. 구인본은 5백 76권이고 신인본은 각기 2백 59권인데

## 1) 실록 소재 예의의 이본간의 변개

예의라는 용어는 정인지의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 “간략하게 예(例, 보기)와 뜻(義)을 들어 보인다(略揭例義以示之)”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흔히 세종 28(1446)년 실록본에 있는 세종 어제 서문과 한글 28자 자모 풀과 그 음가를 비롯한 병서, 연서, 부서, 종성, 성음, 사성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 글을 예의라고 한다.<sup>5)</sup> 해례본을 만들기 전에 세종께서 친히 창제한 언문 28자의 낱글자의 글꼴과 음가를 비롯한 글자 운용의 방식을 집약한 이 예의를 손으로 써서 게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의’는 2종의 실록본과 《훈민정음》해례본 본문으로 실린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이라는 해설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바로 이 예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하건대 세종의 예의 수고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을 위한 1차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뿐만 아니라 집현전 학사들의 해례본 편찬의 지남이 되었을 것이다. 실록본과 《훈민정음》해례본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欲使人易習-欲使人人易習’이나 ‘唇音-脣音’, ‘唇輕音-脣輕音’ 등의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실록본이 후대에 나타나는 각종 예의 이본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이는 책의 장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役事)는 계묘(1603 선조 36년) 7월에 시작하여 병오(1606 선조 39년) 4월에 완성하였다.”(萬曆壬辰之變, 春秋館及星州, 忠州分藏先朝實錄, 盡爲兵火所焚. 獨全州所藏獲免, 移安于海州, 又移安于寧邊, 又移安于江華. 上命春秋館, 依此本印出三件, 舊件則藏于江華之摩尼山, 新件則分藏於春秋館及安東之太白山, 寧邊之妙香山, 草本一件則藏于江陵五臺山. 舊件凡五百七十六卷, 新件各二百五十九卷, 粧結有大小故也. 是役起於癸卯七月, 終於丙午四月.) 《명종실록》, 부록.

5) ‘예의(例義)’의 의미를 정광(2009:243) 교수는 “기, 牙音, 君字初發聲”과 같이 그 자형의 보기를 ‘예(例)’라고 하고 그 음가를 나타내는 ‘기+군(君)’의 한자음을 음가 곧 ‘의(義)’로 규정하고 있다.

로 보아 단순한 오류라기보다는 해례본의 본문으로 실린 것보다 원본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결코 실록본이 선조 대에 부실하게 만들었던 결과로 글자의 누락이나 오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 해례본을 제작하는 과정에 더 다듬어진 결과물로 해례본에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의 이본 연구를 위해서 해례본의 본문 자료만 중시해 온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별 사료로서 실록본 예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필자의 목시적인 의미도 함의하고 있다. 앞의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록본이 단순한 오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록본으로는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의 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본 대조는 이미 정연찬(1972)과 박종국(1984), 정우영(2000)<sup>6)</sup>의 선행 연구가 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세종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훈민정음》자료집<sup>7)</sup>에 실린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의 자료를 정밀 대조하는 동시에 고전국역원에서 제공하는 원본 이미지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였다. 해례본과 실록본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의 자료를 상호 대비해 보면 <태백산본>에서 글자의 누락이나 오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해례본 본문과 다른 점이 더 많다는 사실은 초고에 더욱 가까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 회귀적 관점에서 일부 변개를 통해 해례본에 정착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태백산본>이나 <정족산본> 모두 ‘御製曰’로 시작되는 어제 서문에 ‘欲使人易習’으로 되고, 예의에 ‘여규자초발성(如叫字初發聲)’이 ‘여두자

6) 정연찬, 『해제 《월인석보》(제1,2)』, 《월인석보영인본》,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72;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82면, 1984; 정우영,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과 원본 재구에 대한 재론』, 『불교어문논집』제5집, 2000.

7)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참조.

초발성(如𠄎字初發聲)으로 또 순음(唇音) ‘순(脣)’을 ‘진(唇)’으로 되어 있으며, 태백산본에는 ‘여술자초발성(如戌字初發聲)’이 ‘여수자초발성(如戌字初發聲)’으로 ‘여술자중성(如戌字中聲)’을 ‘여수자중성(如戌字中聲)’으로 되어 있다. 또 두 판본 모두 ‘ㄷ, ㅌ, ㄱ, ㅋ, ㆁ’를 ‘ㄷ, ㄱ, ㅌ, ㅋ, ㆁ’로 표기한 배열 차례에 오류가 있다. 또 정인지 서문에 ‘오동방예악문물 모의화하(吾東方禮樂文章, 倅擬華夏)’를 ‘오동방예악문물 모의화하(吾東方禮樂文物, 倅擬華夏)’로 ‘고지자불종조이회(故智者不終朝而會)’를 ‘고지자불송조이회(故智者不崇朝而會)’로 ‘자운즉청탁지능변(字韻則清濁之能辨)’을 ‘자운즉청탁지능변(字韻則清濁之能卞)’으로 표기하여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판본 모두 신 최항 이하 신 이선로까지 ‘臣’이 생략되었거나 ‘돈령부주부(敦寧府注簿)’가 ‘돈령주부(敦寧注簿)’로 되어 있으며 서문을 지은 날인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예의본의 한자의 누락, 대용자 사용 뿐만 아니라 배열의 순서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례본의 ‘欲使人人易習’와 실록본의 ‘欲使人易習’이 단순한 오류로만 단정하기 어렵다. 후대에 나타나는 이본에서 ‘欲使人易習’이 그대로 전승되어 온 것을 보면 해례본과 실록본은 두 갈래의 이본으로 후대에 전승되었다는 증거이다. 이후 예의본의 이본에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본다면 해례본보다 실록본이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欲使人易習’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것을 문장상의 오류라고 판단한다면 후대의 여러 이본에까지 전승되어 온 것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다. 또 순음(唇音)의 ‘순(脣)’자가 ‘진(唇)’로 나타나는 것은 《열성어제본》이나 《배자예부운략본》의 예의 뿐만 아니라 《경세훈민정음도설본》과 《해동역사본》에서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전사본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우영(2000:31) 교수도 ‘唇:脣’을 현대적 관점에서 단순한 오

류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속자와 정자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 그 근거로 《능엄경언해》권 8~14에서 “唇(食倫切 口也)”라고 반절을 근거로 하여 ‘췌’이며 그 뜻은 ‘口唇’으로 ‘입술’이라는 예를 들고 있다. 운학과 자학을 심도 깊게 연구한 명곡 최석정이나 병와 이형상의 글에서도 ‘순(脣)’자와 ‘진(唇)’자는 많이 혼용하고 있다.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이은 집현전 관련 학사들의 직함과 명단에서 ‘臣’이 소자로 첨기되어 있는데 실록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해례본은 상주의 목적이 있지만 실록에서는 객관적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臣’이 생략되어도 무방한 것인데 이를 오히려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2>과 같다.

[표-2]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의 대조

	해례본	실록 태백산본	실록 정족산본
도입	없음	御製曰	御製曰
서문	欲使人人易習	欲使人易習	欲使人易習
예의	如虯字初發聲	如虯字初發聲	如虯字初發聲
	如吞字初發聲	□吞字初發聲	□吞字初發聲
	脣音	脣音	脣音
	如戍字初發聲	如戍字初發聲	如戍字初發聲
	如戍字中聲	如戍字中聲	如戍字中聲
	卽爲脣輕音	卽爲脣輕音	卽爲脣輕音
	ㄱ ㅋ ㆁ ㆁ	ㄱ ㅋ ㆁ ㆁ	ㄱ ㅋ ㆁ ㆁ
정인지 서문	吾東方禮樂文章侷擬華夏	吾東方禮樂文物侷擬華夏	吾東方禮樂文物侷擬華夏
	故智者不終朝而會	故智者不崇朝而會	故智者不崇朝而會
	字韻則清濁之能辯	字韻則清濁之能卞	字韻則清濁之能卞
	臣崔恒	□崔恒	□崔恒
	敦寧府注簿	敦寧注簿	敦寧注簿
간기	正統十一年九月上澣	생략	생략

이러한 차이는 글자가 누락된 것, 글자가 바뀐 것, 글자의 순서가 바뀐 것, 이체자로 쓴 것, 대용자로 쓴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獯’ 자에서 ‘犬’의 점을 가감하거나 ‘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점 삭제하였다. 곧 불길한 의미를 지닌 한자의 경우 이처럼 감획을 하거나 ‘中’, ‘狹’의 경우 점을 가획하고 있다. ‘爲’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장이나 연이어지는 문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爲’와 ‘爲’를 번갈아 다른 서체로 바꾸어 씀으로써 도형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殿下’나 ‘명(命)’ 글자 다음은 행간을 낮추거나 혹은 공격으로 하였으며, 신하의 이름을 나타내는 ‘臣申叔舟’처럼 ‘臣’자나 이름 ‘叔舟’는 적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일종의 상주문이기 때문에 사서의 기록과 달리 편방점획(偏旁點畫)이 나타난다. 이형상의 《자학》에서 “자획이 많고 적음은 모두 《설문해자》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편방점획에 착오가 있는 것은 (중략) 당시에 법으로 매우 엄격하여 이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점점 법의 적용이 느슨하게 되어 편방점획은 단지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장(上奏章)에서만 쓰게 되었고”<sup>8)</sup>라는 기술과 같이 《훈민정음》해례본은 어서(御書)로서 매우 엄격한 편방점획이나 서체와 문장 양식의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해례본의 한자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편방점획이나 옛 속자가 실록본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다.<sup>9)</sup>

이상 실록본의 검토를 통해 1차 사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실록본 예의가 해례본으로 발전하면서 일부의 변개가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실록본 예의가 조선 후기에 성운학자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 김연중, 『이형상의<자학(字學)> 역주』, 푸른역사, 2008.

9) 이상규, 「《훈민정음》영인 이본의 권점 분석」, 『어문학』100호, 한국어문학회, 2009. 참조.

2) 예의를 간략하게 드러내어 보이시며(略揭例義以示之)

세종 28년(1446)년 병인 9월 상한(上澣) 《세종실록》에 정인지 서문에 “계해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는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창제하시어 예의를 간략하게 드러내어 보이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시었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는 내용은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세종실록》의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라는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종 25(1443)년에 이미 창제한 언문 28자의 요강인 예의를 토대로 하여 세종 28년(1446)년 병인 9월 상한(上澣) 《훈민정음》해례본이 완성되었다. 그 “예의를 간략하게 드러내어 보이시며(略揭例義以示之)” 내용이 무엇일 까? 언문 28자의 예와 그 뜻을 담은 ‘예의(例義)’로 상정할 수 있다.<sup>10)</sup>

《세종실록》세종 25(1443)년 계해 12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언문 28자를 ‘훈민정음’이라는 명칭까지 규정하고 언문 28자의 글꼴과 음가 및 그 운용법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달에 언문 28자를 창제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세종 26(1447)년 2월 14일 《운회》의 언해 사업의 하명, 세종 26(1447)년 2월 20일에 최만리 반대상소문, 세종 26(1447)년 3월 《용비어천가》편찬 하명<sup>11)</sup>, 세종 28(1448)년 3월 《석보상절》언역을 명하는 등 일련의 한글 실용화 사업이

10) 이 ‘예의’라는 용어는 정인지의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 곧 “간략하게 예(例, 보기)와 뜻(義)을 들어 보인다(略揭例義以示之)”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흔히 실록본에 있는 세종어제 서문과 28자 글꼴과 그 음가를 비롯한 병서, 언서, 부서, 종성, 성음, 사성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 글을 예의라고 한다. ‘예의(例義)’의 의미를 정광(2009:243)은 “ㄱ, 牙音, 君字初發聲”과 같이 그 자형의 보기를 ‘예(例)’라고 하고 그 음가를 나타내는 ‘+ᄒᆞᆫ(君)’의 한자음을 음가 곧 ‘의(義)’로 규정하고 있다.

11) 최종민(2013:492) 교수는 《용비어천가》가 세종 24년 3월 이전부터 준비하였으며, 세종 27년 4월에는 한역이 완성되었고 세종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정간보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코 진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세종 25(1443)년 이후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예시한 문서가 바로 예의 수고(手稿)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수고는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본을 만드는 지남이 되었을 것이지만 후에 일부 내용을 다소 변개된 후에 실록과 해례본의 본문으로 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례본의 본문으로 전제가 된 실록본 예의를 원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후 해례본의 발표(發布) 범위는 매우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록본 예의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 《열성어제본》을 비롯한 개인적 저술에도 실록본 예의가 그대로 전승되어 온 사실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실록본 예의가 사료로서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sup>12)</sup>

### Ⅲ. 《세종실록》의 내용 분석

#### 1.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세종실록》

한글 창제를 밝힌 최초의 사서 기록은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30일

12) 홍기문(1946:5)은 “이 예의는 《훈민정음》문헌으로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또 더구나 세종의 어제(御製)이다. 어떤 의미로는 해례나 언해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하나의 성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언해에 파묻혀 그 독자적인 존재가 불명료했지만 이제는 해례의 발견으로 그 존귀한 가치가 절하될 염려가 있다. 언해는 물론 예의에 대한 언해요, 해례도 또한 예의를 토대로 삼은 해례임으로 일단 예의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두 문헌에 미치는 것이 사리의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라고 기술하면서 예의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숙종 조 이후 다시 훈민정음의 중간인 《열성어제본》예의나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본》예의의 이본들을 비교해 보면 해례본의 배포의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예의를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실록본 예의가 성운학 연구의 주요 텍스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술) 《세종실록 102권》의 기사이다.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실록의 기록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간략하지만 매우 분명하고 조리 있게 쓴 글이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sup>13)</sup>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42장.

세종 25년(1443) 계해 12월 30일 실록 기록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사실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매우 간략하지만 한글 창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실록의 글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단락 내용으로 구분된다.

- ① 언제: 이 달에(是月).
- ② 누가-어디서: “임금께서 (궁중에서) 친히 제작하였다(上親制)”에서 한글의 창제자가 세종임을.
- ③ 무엇을: “언문 28자(諺文二十八字)”에서 한글 명칭이 ‘언문’이고 낱글자가 28자임을.
- ④ 어떻게: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였으며(其字做古篆)”에서 초·중·종을 합자한 글꼴은 고전자(古篆字)임을 그리고 글자를 분해하면 초, 중, 종성으로 나누어지고 합한 연후에 글자가 이루어진다고(其字做古篆,

13) “○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其字做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凡干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字雖簡要，轉換無窮，是謂《訓民正音》。”，〈세종장헌대왕실록〉 권102.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곧 한 글자가 초·중·종을 합쳐 음절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한 음절 단위의 글자의 모양은 고전(古篆, 예 한자 글꼴)을 모방한 방패형(네모형)임을.

- ⑤ 왜: “무릇 중국 한자나 조선의 말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나 심지어 조선 내의 이어(변두리말)도 다 글로 쓸 수 있다(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는 음성 표기 문자임을. 그리고 “글꼴은 비록 간략하지만 전화하는 것이 무궁하고(字雖簡要, 轉換無窮)”라고 하여 28자 음소문자 뿐만 아니라 합자를 통해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표음문자 곧 음성문자임.

- ⑥ 결: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是謂訓民正音).”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하 원칙에 따라 한글의 창제 과정을 압축하여 설명한 글이다. 세종 25년(1443) 계해 12월에 세종이 언문 28자를 창제하였고, 그 글자(음절구성)는 고전을 모방하였으며 초, 중, 종성으로 나누어지나 합한 연후에 한 글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나라의 글자가 없으므로 무릇 한자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포함한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의 소리를 모두 글자로 쓸 수 있는데 그 문자의 운용과 전환이 무궁한 문자를 곧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언문’ 28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제한적 음소문자로서 ‘언문’은 표음문자로서도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세종이 직접 창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글자는 비록 간요하니(字雖簡要)’는 제한적 음소문자 언문을,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轉換無窮)’은 한음을 비롯한 외래 문자를 정음(正音)으로 표기할 수 있는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 실록 기록은 언문 28자는 세종이 창제하였음을 그리고 그 글자의 이름으로 ‘언문’과 ‘훈민정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를 뒷 구절의 ‘分爲’의 전제가 ‘其字’이기 때문에 낱글자인

‘ㄱ, ㄴ, ㄷ’ 등이 고전자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초, 중, 종을 모아쓴 글꼴이 방패형인 고전자를 모방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글이다. 한글 창제 경위에 대한 더 이상의 군더더기의 글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그 핵심을 밝힌 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세종 28년(1446)년 병인 9월 상한(上澣) 《세종실록》

《훈민정음》해설서가 완성된 경위에 대한 도입부의 실록의 기사는 아주 간단하다. 곧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是月, 訓民正音成。御製曰)”라는 도입부 아래에 세종어제 서문과 예의와 정인지 서문이 실려 있다.

세종 28년(1446)년 세종실록에는 “○是月, 訓民正音成。御製曰”이라는 도입사에 분명하게 “訓民正音成”이라고 밝혔는데 방종현 교수(1446:50)는 이 ‘成’자는 《훈민정음》해례본 책이 완성된 시기로 파악하고 문자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 이후 이승녕 교수(1976:12)는 “요새 말로 하면 원고가 탈고되었던 것이지 아직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하여 《훈민정음》해례본 책의 탈고시기로 잡고 있는데 거의 대등한 의미로 판단된다. 그 다음 어제왈(御製曰) 아래에 ① 어제 서문, ② 초성 글꼴과 음가, ③ 중성 글꼴과 음가, ④ 종성규정, ⑤ 연서규정, ⑥ 병서규정, ⑦ 부서규정, ⑧ 성음규정, ⑨ 사성법과 ① 정인지 서문이 실려 있다. 이 내용은 《훈민정음》해례본의 본문으로 실려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 해설서인 해례본과는 여러 가지 변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구상했던 언문 28자의 창제와 이를 해설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모의 체계와 종성의 음가 및 한자음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변개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도 일일이 세종이 직접 관여 했던 증거로 《동국정운》

## 서문에

“신들은 재주와 학식이 얇고 짧으며 학문이 고루하여 상감의 분부를 옹계 이루지 못하고 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괴롭혔습니다. 이에 옛 사람의 운목을 정하고 자모를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합칠 것은 합치고 나눌 것은 나누어 하나를 합하고 하나를 나누거나 하나의 성모를 세우고 하나의 운모를 정함에 있어서 모두 상감의 제가를 얻었으며 또 각각 상고한 근거가 있다. 이에 사성으로 조정하고 91운과 23자모로 기준을 삼은 다음에 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그 음을 정하였으며, 또 ‘질(質)운’과 ‘물(勿)운’ 같은 운미는 ‘영모(ㄷ)’로 ‘래모(ㄹ)’를 보충하여 속음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잡았으니 옛 습관의 잘못됨이 여기에 이르러 모두 고쳤다. 책이 이루어지자 동국정운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sup>14)</sup>

라고 하여 세종이 직접 성모와 운모를 정하는데 상감의 제가를 얻었다는 사실에서도 훈민정음의 운용과정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26(1444)년 2월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만일 언문을 부득이하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었다고 하면(儻曰諺文不得已而爲之)”이라고 하여 한글 창제가 예의를 통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을 올린 이유가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각종 운서를 새로 짓는 일이 한지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사대적 관점에서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문이라는 새로운 문자사용의 부당성을 논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이 내린 하교문에서 “너희들의 시종하는 신하

14) “臣等才識淺短，學問孤陋，奉承未達，每煩指顧。乃因古人編韻定母，可並者並之，可分者分之，一並一分，一聲一韻，皆稟宸斷，而亦各有考據，於是調以四聲，定位九十一韻二十三母，以禦制訓民正音定其韻，又於質母諸韻，以影補來，因俗歸正，舊習誤繆，至是而悉革矣。書成。賜名曰東國正韻。”，〈동국정운〉서문.

로써 뻔히 나의 의사를 알면서(汝等以侍從之臣, 灼知予意)”에서도 세종의 한글 창제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세종 25(1443)년 이전의 한글 창제 경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시 워낙 획기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에 훈신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세종 25(1443)년의 실록 기록은 한글 창제 경위를 포괄적으로 기술한 매우 정밀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 과정을 마치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추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추론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 세종의 하교문에서 “이제 와서 불가하다고 하는가(今反以爲不可)”라는 내용은 김문(金汶)이 언문 제작에 대한 동의하다가 최만리와 함께 이제 와서 반대 상소를 올린데 대해 고심한 세종의 심정을 노출하고 있다. 이 대목을 통해서도 최만리 등 집현전의 주요 학사들도 이미 세종이 직접 한글 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세종 25(1443)년 12월 이전부터 한글 창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 창제를 왕실 중심으로 기밀하게 추진하였다는 논의들은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3. 세종 25년(1443) 계해 12월 《세종실록》에서 제기된 문제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분명하게 밝힌 세종실록의 실증적 근거를 존중하지 않고 부정확한 개인 문집 등에 실린 2차 사료를 근거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1) 훈민정음 창제 일자와 창제자 문제, 2) ‘언문’과 ‘훈민정음’ 그 명칭, 3) 《훈민정음》해례본의 반포설, 4) 상형이자방고

전(象形而字倣古篆)와 한글 창제 기원설, 5)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의 해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훈민정음 창제 일자와 창제자 문제

“이 달에(是月),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제작하셨다”는 명백한 사료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창제 일자에 관한 문제인데 실록에는 창제 일자는 밝혀놓지 않았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한글 창제가 마치 궁중의 비밀리에 추진된 것이라는 논의와 함께 “훈민정음의 창제가 《동국정운》보다 선행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정경일, 2002:65), “《동국정운》은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것이다.”(이동립, 1968), “훈민정음은 《동국정운》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장적 구실을 했다.”(이승녕 교수(1976:52, 남성우, 1979, 강규선·황경수(2006:74)에 “《동국정운》을 만드는 것도 한자음 개신책으로 한글을 만든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라는 논의로 번져갔다. 무릇 이 보다 더 사소한 문제도 통상 실록 기록에 정확한 날자가 명기되는 터인데 날자의 기록이 없었던 것은 예의에서 해례로의 전이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예의에서 해례로 가는 계기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 창제시기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의 사료에 근거하여 세종 25(1443)년 12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종 25년에 한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종 28(1446)년 9월에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이라는 사료를 근거로 하여 《훈민정음》해례본의 간행 시기를 한글의 완성 시기로 보는 종래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다음 훈민정음 창제자에 대한 문제이다. 훈민정음 창제자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은 매우 다양하다.<sup>15)</sup>

- ① 친제설: 훈민정음은 세종이 친히 창제하였다는 ‘세종 친제설’(방중현: 1947, 이기문: 1974)
- ② 왕실 협력설: 왕실 협력설은 다시 세분하여 ‘대군 협력설’(임흥빈, 2006:1385), ‘정의공주 협력설’(이가원:1994, 정광: 2006)이 있으며,
- ③ 집현전 학사 협찬설: 집현전 학사 협찬설(이승녕: 1958, 김민수: 1964, 허웅: 1974, 김진우: 1988, Albertine Gaur: 1995)
- ④ 세종 친제 협찬설: 세종 친제와 함께 해례본은 집현전 신하와 협찬설(강신향: 2003, 안병희: 2004)
- ⑤ 세종 창제 명령설: 세종의 명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세종 창제 명령설(이기문: 1997)

등 매우 다양한 학설이 제기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종 친제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이승녕(1976:85) 교수는 “훈민정음을 제정할 때의 세종의 건강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특히 기억력의 쇠퇴와 안질로 정사 자체도 세자에게 맡길 정도이어서, 세종은 훈민정음 제정에선 집현전 학사에게 오직 원칙을 제시하고 방향만을 설정했을 따름이고 문제점을 상의했을 정도요, 세목의 연구에는 관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중략> 국어학사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갖지 못하고, 함부로 조작설을 근거도 없이 내 세운다는 것은 학문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심한 예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으시다가 과로의 결과로 안질을 얻었다는 설은 허위와 조작의 산물임을 이상의 사실 규명으로 단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한글 창제자가 결국 세종의 친제가 아니라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임금 건강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한 세세한 기록을 다 모은 것을 실증주의적 근거로 삼

---

15) 방중현저·이상규주해, 『훈민정음통사』, 을재, 2013, pp.416-420 참조.

은 주장이 오히려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급기야 강규선·황경수(2006:75)는 “세종의 건강은 전술한 것처럼 안질, 소갈증, 부종, 임질, 요배견통, 수전, 언어 곤란, 각통 등으로 세종 29년부터 세자 섭정 문제가 세종 자신의 주장으로 되풀이 된다. 또 온천 요양 차 자주 도성을 떠나는 날이 많았다. 안질 같은 병은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왕의 대행을 스스로 주장하던 세종이 연구생활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

최근 친제설에 대한 반론으로 정광(2006:8) 교수는 “훈민정음이란 신문을 지를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을 강조하여 문자의 권위와 그로 인한 어떠한 부작용도 제왕의 그늘 속에 묻어버리려는 뜻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세종이 신문자 28자를 직접 제작했다는 실록의 기사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기사다.”라고 하면서도 정의공주 협찬설을 주장한다. 영향력 있는 학자가 한 이 논의가 엘버틴 가울(Albertin Gaur)(1995)는 외국 학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손수 발명한 공로자로 종종 묘사되지만 이런 현사는 대개 예우와 새로운 관습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가 섞인 것이다.”라고 하여 세종 친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어떤 실증적 근거 없는 논의는 도리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왕실 협력설 가운데 먼저 세종과 문종 협력설의 논거가 되어온 기록이 있다. 《직해동자습》서문에 “우리 세종과 문종대왕은 이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 이미 만든 훈민정음이 천하의 모든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어”라는 2차 사료에 근거하거나 《운회》번역 등의 각종 사업에 왕자나 세자에게 일을 감독하도록 명한 내용을 들어 대군 협력설을 주장하기

도 한다. 그리고 《몽유야담》 <창조문자>에 “우리나라 언서는 세종 조에 연창공주가 지은 것이다.”와 《죽산안씨대동보》에서 “세종이 방언이 한자와 서로 통달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비로소 훈민정음을 지었는데 변음과 토착은 오히려 다 연구하지 못하여 여러 대군으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 보냈다.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라고 하는 전거를 들어 정의공주 협력설이 제기되었다. 야담 소설이나 족보에 실린 2차 사료가 국가 기록물인 실록보다 실증적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집현전 학사 협찬설의 논거로는 《청장관전서》권54권 <양엽기 1>에 “장헌대왕이 일찍이 변소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배열해 보다가 문득 깨닫고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창제하였다.”는 기록이나 병와 이형상이 지은 《악학편고》권1 <성기원류>에 “정 하동 인지 신 고령 숙주 성 승지 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 28자를 지었으니” 등 다수의 부정확한 조선 후기의 2차 사료들이 있다.

세종 친제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료는 매우 많이 있다. 《세종실록》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30일 기사에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는데”를 비롯해서 《임하필기》제38권 <해동악부>에 “세종대왕이 자모 28자를 창제하여 이름을 언문이라 하였는데”, 《정음통석》 서문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언서로 중국 반절음을 풀이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홍재전서》제9권 <서인(序引)>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언서(諺書)로 중국의 반절음을 풀이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라고 하여 세종 친제설의 근거가 된다.

훈민정음의 창제 경위는 적어도 3단계에 걸친 과정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곧 첫 단계는 세종 25(1443)년 《세종실록》에서 표방한 언문 28자를 창제한 시기, 둘째 단계에서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세종 친제 언문 28자에 대한

이론적 골간을 세운 과정에서는 세종이 직접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론의 틀을 고정시키는 시기, 셋째 단계는 세종과 집현전의 8명의 신예 학사들과 공동으로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를 운학에 기반하여 중국 운서의 번역과 중국 한자음의 통일을 보완과정으로 추진된 것이다. 곧 한글 창제는 “창제>이론화>보완” 과정이라는 계기적인 연구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첫 단계에는 정인지의 서문에서와 《국조보감》제7권 <세종조 3>에는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제한적 음소문자인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대략적으로 예의를 게재하여 제시하였다.”라는 기술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곧 세종 25(1443)년에 언문 28를 만들어 어제 서문과 예의를 발표한 것은 분명하게 세종의 친제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둘째 단계는 예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실들이 대폭 확장하여 해설서인 해례본을 만든 시기이다. 이 과정에는 세종의 단독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집현전 신예 학사 8명과 함께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를 한자음, 한어 표기뿐만 아니라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우리 고유어까지 표기할 수 있어 이 세상의 만물의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로 승화시킨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최만리 등의 반대상소를 올리는 등의 파란을 겪게 된다.

셋째 단계는 한자음과 외래어 표기 및 중국어 원음 표기를 위해 중국 운서를 번역하는 일과 실용 단계의 언서를 간행한 단계이다. 둘째 단계에서 아직 고정되지 않은 중성 표기 방식을 확정하거나 한자음 표기에서 정치와 치두음 표기 등의 정밀화와 보완이 추진된 과정이다. 이 또한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문 28자는 세종의 친제이고 연이은 언문의 운용 방안과 실제 적용의 문제는 집현전 학사들과 협찬에 의해 완성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곧 예의는 친제요, 해례는 협찬 제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례본을 만든 3년 동안은 세종 단독이 아닌 집현전 신예 학사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집현전을 대표하는 정인지의 통해 수시로 제가를 받을 만큼 치밀하게 진행했던 것이다. 《해동역사》제42권 <예문지>에서도 “성인께서 처음으로 글자를 창제한 공이 크다고 하겠다.”라고 하여 세종에게 그 공을 크게 돌리고 있다.

1단계 곧 언문 28자의 창제는 바로 세종이 직접 구상한 결과이며, 이것을 토대로 한 2단계와 3단계 곧 해례편의 완성과 한자음 표기를 위한 운서 제정은 집현전 학사들과 협찬에 이루어진 것이다. 숙종 시대의 운학자인 명곡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47에 “세종대왕이 지으신 언문의 이름을 정인지가 훈민정음이라 지었다.”라고 하여 필자가 논의해 온 것과 같은 언문 28자는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고 이를 해설한 것은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와의 협찬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 2) ‘언문’과 ‘훈민정음’ 그 명칭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세종실록》에서 밝힌 “언문 28자(諺文二十八字)”에서 제시된 ‘언문’의 명칭과 “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是謂 訓民正音)”는 기록에서 ‘언문’과 ‘훈민정음’이 동시에 나타난다. 세종 26(1444)년 갑자 2월 세종실록에 최만리 반대 상소문과 세종이 내린 하교문에 ‘언문’이라는 명칭은 26(‘비언’, ‘언자’ 포함)회 정도 나온다. “곧 지금의 이 언문도(則今之諺文)”라는 대목에서도 세종이 직접 ‘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6)</sup> 곧 세종의 하교문에서 “지금의 이 언문(則今之諺文)”이라는 기사를 통해 곧 한글을 창제한 세종께서도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사용하

16)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과 임금의 하교문에 ‘언문’과 관련된 명칭이 26회 나타난다. 그 가운데 ‘언문’은 세종이 3회, 최만리가 19회, 김문이 2회 사용하고 있으며, ‘비언’과 ‘언자’는 최만리가 각각 1회씩 사용하고 있다.

지 않고 ‘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세종이 정창손에게 친국을 한 뒤 하교문 가운데 “내가 만일 언문으로서 번역한(予若以諺文譯)”이라는 기사에서 세종 스스로가 ‘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한글의 명칭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논거이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언문’이라는 명칭이 모두 최만리가 가리킨 말이 아니라 세종의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한 논의도 있다. 이 내용은 한글 창제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분명히 밝힌 대목이면서 그 명칭을 세종도 ‘언문’이라고 했다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이다.

이상의 논거를 통해보면 세종이 직접 한글을 ‘언문(諺文)’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문’이라는 용어는 ‘훈민정음(정음)’과 함께 사용 상의 목적에 따라 달리 불려진 이름으로 보이며, 세종실록의 세종 25(1443)년 12월에 ‘언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 ‘정음’보다 먼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후속 한자음 표기 문제의 대두와 함께 정성, 정음 사상을 존중하는 성리학적 용어로서 ‘정음’이라는 용어가 기능적인 면에서 ‘언문’과 구분하여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언문’이라는 명칭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상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이라는 뜻풀이도 있고 또 “특히 훈민정음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문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유창균, 1993:125)라고 하여 세종 당시 ‘언문’이라는 명칭이 마치 자기 비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정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sup>17)</sup> 이러한 논의는 한글의 우수성을 스스로 비하하는 불필요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17) 홍윤표, 『한글이야기』 1, 태학사, pp.18-20 참조. 홍윤표 교수는 ‘언문’은 보통 명사로 ‘훈민정음’은 고유명사로 이해하고 있다.

‘언문’은 28자의 제한적 음소문자를 지칭하고 ‘정음(훈민정음)’은 우리말을 물론 한자음 표기를 위시하여 몽고, 여진, 일본 등의 말을 표음하는 정음(正音) 곧 표음문자(음성문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언문’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이름, 곧 초성과 중성의 낱글자의 명칭이라면 ‘훈민정음(정음)’은 한자음표기를 비롯한 외래어 표기를 위한 바른 음(正音), 바른 소리(正聲)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었다가 그 후 뒤섞어 사용한 것이다. 또한 예의에서 해례로 변개되는 과정에서 한글 28자의 명칭이 ‘언문>정음’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곧 28자로 규정된 제한적 음소문자에서 한자음 표기를 위한 표음문자로 그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곧 우리말 표기에서 한자음을 비롯한 외래어 표기 문자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조 대에 병와 이형상(1653~1733)은 《악학궤고》에서 “세종대왕이 언문청을 설치하고 (중략) 정 하동 인지와 신 고령 숙주와 성 승지 삼문 등에게 언문을 지어 이르되 초종성 8자(世宗大王設諺文廳 (중략) 命鄭河東麟趾, 申高寧叔舟, 成承旨三問等, 製諺文曰, 初終聲八字.)”라고 하여 ‘언문’이라는 용어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용되었다. 이형상이 지은 《자학제강》 <운학시종>에서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은 바로 언문을 말한다.(我世宗大王御製 訓民正音, 卽所謂諺文也)”라고 하여 숙종 무렵에는 ‘언문’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조선조 후기에 가서 언문이 한문에 대응되는 변방의 문자라는 비하적 의미로 사용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창제 당시 이러한 두 가지 명칭이 함께 사용한 것은 문자라는 대상을 지칭한 동의어라기보다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달리 불렀던 것으로 이해된다. 곧 언문은 한자에 대응되는 문자 이름인 동시에 언서(諺書)와 같은 한글로 쓴 글이나 책의 명칭으로, 훈민정음은 바른 소리를 적는 기능적인

문자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 번역서나 언해서에 ‘정음’이라는 이름이 달린 책이 없는 것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반대 상소문에 대한 하교문에서 세종이 스스로 ‘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문이나 한자에 대응된 이름으로 언문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 3) 《훈민정음》해례본의 반포설

훈민정음의 창제와 둘러싼 논의 가운데 뜨거운 논점 거리가 또 하나가 있다.

훈민정음이 과연 백성들에게 반포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세종 25(1443)년을 창제 시기로 보지 않고 《훈민정음》해례본이 완성된 시기(엄격하게 말하면 정인지가 《훈민정음》해례본의 서문을 작성한 날자)인 세종 28(1446)년 9월 상한(上澣)을 새 문자를 반포한 시기로 보는 종래의 관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놀랍게도 조선조 문헌 기록상 ‘반포(頒布)’라는 용어는 단 한 군데도 사용된 적이 없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나타난 ‘광포(廣布)’라는 용어를 본 따서 김윤경(1954) 교수이나 방중현(1946) 교수도 ‘발포(發布)’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반포’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쿠라 심페이(1946)는 ‘공포(公布)’라 하였고, 박승빈(1947)은 ‘영포(令布)’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반포 기념식을 공식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포’라는 용어로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해례본 책의 완성 시기를 반포로 인식한 종래의 논의를 비

관한 이승녕 교수는 “다시 결론한다면, 실록의 세종 28년 9월 끝의 기사로 ‘訓民正音成’은 앞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원고가 작성되어 임금께 올린 것이지, 책이 출판된 것은 아니다. <중략> 다시 강조한다면,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원고를 써서 세종께 바친 날이지 출판기념일도 아니다.”<sup>18)</sup>라고 하여 세종 28(1446)년 9월 상한이 훈민정음 반포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틀린 말이 아니다. 방중현(1946) 선생께서는 ‘성(成)’을 《훈민정음》해례본의 책이 완성된 시기로 보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다. 다만 이 시기에 반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어떤 다른 기록에서도 ‘반포’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해설서에 불과하며, 또 반포로 볼 수도 없다.”<sup>19)</sup>는 주장과 함께 반포일은 훈민정음 예의를 언해한 《훈민정음》언해본이 《월인석보》권두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반포일로 보아야 한다는 좀 생경한 주장도 있다.<sup>20)</sup>

과연 정식으로 전 백성에게 사용하기를 권면하는 반포라는 절차를 거쳤을까? 왕의 고유나 칙령을 승정원을 통해 백성들에게나 하교하는 법적 절차를 반포라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해례본 인간과 관련된 반포라는 기록은 어디에서고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세종 26(1446)년 갑자 2월 20일에 최만리가 올린 상소문에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서리 무리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고금운회거요)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하여 공장 수십 인을 모아 각본하여서 급하게 널리 ‘광포(廣布)’하

18) 이승녕, 『개혁국어학사』, 박영사, 1976, pp.15-16.

19)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2006, p.24.

20) \_\_\_\_,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언어정보』 제7호,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2006, pp.5-38.

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라는 기사에 나타난 ‘광포’의 의미를 확대하여 ‘반포(頒布)’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법률적 선포식을 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sup>21)</sup>

결론적으로 어떤 사료에서도 반포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반포라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실증할 어떤 근거도 현재로서는 찾을 길이 없다.

#### 4)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와 한글 창제 기원설

언문 28자의 자모에 관한 실록과 해례본의 기록은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세종실록》에서 “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에서 그 개요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당대의 몇 가지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세종실록》: “其字倣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
- ② 세종 27(1444)년 2월 《세종실록》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반대 상소문: “則字形雖倣古之篆文”
- ③ 세종 28(1446)년 9월 상한 《세종실록》 <정인지 서문>: “象形而字倣古篆”
- ④ 세종 28(1446)년 9월 상한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

21) 영조 12(1736)년 병진 중추(팔월)에 《여소서언해》의 영조 서문에 “참조하다 그 이 글을 귀간하야도 오히려 귀간치 못 혼 前전과 갓호며 그 이 글을 넓그매도 오히려 넓지 아닌 前전과 갓호면 이 엇지 나의 眷권眷권하야 廣광布포호는 쓰지리오 그 각각 各各 힘써 조금도 忽홀치 말을 써어다”라고 하여 《여소서언해》를 인간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로 ‘광포(廣布)’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곧 이 책의 서문에 임금이 밝힌 내용이다.

첫째,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조의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는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其字’의 개념이 초, 중, 종성으로 합친 곧 C+V+C로 구성된 음절글자를 말한다. 곧 “그 글자(其字)는 초중종성으로 나뉘어지고(分爲初中終聲), 초중종 낱글자를 합한 연후에 글자가 이루어진다(合之然後乃成字)”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초, 중, 종성을 합한 한 음절글자 모양은 방패형으로 옛 전자(古篆)의 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문 28자의 낱글자가 옛 전자(古篆)를 모방했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없음이 분명해진다. 음절글자의 모양을 옛 전자(古篆)와 같은 방패형 서체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한글 창제 당시 한자와 혼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한글 글꼴이 1:1의 대응을 이루도록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sup>22)</sup> 또한 세종 당시 여진과 몽고와의 교린 관계가 활발했던 관계로 몽고의 파스와 문자, 거란 대소자, 여진 대소자의 모아쓰기의 방식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곧 한글의 낱글자인 자모는 발음기관과 발음하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고 낱글자를 모이쓴 음절글자는 고전체를 모방했다는 의미이다.

둘째,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곧 자형이 비록 옛날의 고전(古篆) 글에 의방(依倣, 모방)하였을지 모르오나(則字形雖倣古之篆文)”라는 기사에<sup>23)</sup>

22) “한자와 언어(諺語)를 잡용(雜用, 섞어 씀)하게 되면 한자음에 따라서 중성에 종성으로써 보족(補足, 보통, 補以中終法)하는 것이 있으니 공자 | 魯人: 짜 · 립의 류와 같으니라.(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如孔子 | 魯人: 사림之類。) <훈민정음>합자해.

23) “오로지 중화 제도를 따라 왔는데 이제 중국과 문물제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시면 이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

나오는 ‘자형(字形)’은 초성, 중성, 종성의 날개 글자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구성으로 이루어진 글자꼴(C+V+C)을 뜻한다. 곧 고전(古篆)체와 같은 방패형(네모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인지 서문에서 밝힌 “(그 날글자는) 상형하였으나 (음절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象形而字倣古篆)”라는 기록은<sup>24)</sup> 세종 25(1443)년 실록의 기록보다 더 구체적으로 날글자의 글꼴과 단 음절문자의 글꼴을 분리하여 그 상형의 바탕을 기술함으로써 언문 자모 28자와 음절문자 서체 형태의 기본을 밝힌 것이다.

넷째, 세종 28(1446)년 9월 상한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서 다시 “각 날글자는 그 형상을 모상하여 만든 것이다(各象其形而制之)”라고 하여 날글자 언문 28자의 글꼴의 제자 원리를 분명히 밝힌 구절이다. 곧 날글자는 발음기관을 ‘상형(象形)’을 제자 원리로 삼아 조음기관 또는 자음을 조음할 때의 조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제자 순서는 먼저 아, 설, 순, 치, 후음별로 기본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을 제자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가획(因聲加劃)’의 원리에 따라 발음이 센(厲)음의 순서대로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 글꼴을 만들었다. 모음 역시 하늘(天-圓), 땅(地-平),

---

때 혹시 대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C+V+C로 구성된 음절글자)은 비록 옛날의 고전 글자와 비슷합니다만 소리로서 글자를 합하는 것(合字, C+V+C 결합 방식)은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 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세종실록》 세종 27(1444)년 2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반대 상소문.

- 24)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그 날글자는) 상형하였으나 (음절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

사람(人-立)의 삼재를 상형한 · 一 | 를 기본으로 하고 합성의 원리에 따라 글꼴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란스러울 만큼 다양한 한글의 글꼴의 기원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 ① 고전상형설(古篆象形說): 정인지의 《훈민정음》서, 이덕무의 《양엽기》, 최만리의 <반대상소문>, J. S. Gale(1912), 김완진(1966:384~385), 홍윤표(2005:54~56)
- ② 몽고 범자기원설(梵字起源說): 성현의 《용제총화》, 이수광의 《지봉유설》, 황윤석의 《이삭신편》, 이형상의 《자학》, 1784년 간 《진언집》, 황윤석의 《이재유고》, 김윤경(1932:202), 이상백(1957:3~4), 유창균(1970:70), M. Kia proth(1832), P. Andreas Eckardt(1928).
- ③ 몽고 파스파문자기원설(八思巴文字起源說): 이익 《성호사설》, 유희 《언문지》, 이능화 《조선불교통전》(614~616), 유창균(1970), 정광(2012), Ledyard(1998), 주나쓰투(照那斯圖, 2008)
- ④ 서장문자기원설(西藏文字起源說): L. Rosny(1864), I. Taylor(1883), H. B. Hulbert(1892)
- ⑤ 오행상형설(象形說): 정인지 《훈민정음》서문, 최석정의 《경세정음도설》, 신경준의 《저정서(훈민정음운해)》, 홍양호의 《이계집》, 강위의 《의정국문자모분해》
- ⑥ 오행설(五行說):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방종현(1946)

외에 음악기원설(병와 이형상의 《악학편고》, 최종민(2013), 28수기원설(최석정의 《경세정음도설》, 홍양호의 《이계집》, 이익습(1893)<sup>26)</sup>,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 기원설(강신항(2003), 측주설(이규경의 《오주연문

25) 방종현저·이상규 주해, 『훈민정음통사』, 올제, 2013, pp.106-118 참조.

26) Yi Ik Seup, *The Alphabet(Panchul)*, *Korean Repository*, Vol.1, October. 1892.

장산고》), 석고자기원설(이형상의 《자학》)을 비롯하여 덧문창살설, 팔괘설 등 다양한 기원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설 가운데 최근 제기된 고전설에 나타난 견해에 대해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 고전설을 김완진(1966:384~385) 교수가 다시 제기하였다. 정인지 서문에 나타나는 ‘象形而字倣古篆’과 대응을 이루는 세종 25년 《세종실록》에는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료를 대조해 보면 상형한 ‘諺文二十八’의 ‘字’는 자모(낱글자)를 말하고 ‘字倣古篆’의 ‘字’는 한 음절(초+중+종 합자)로 된 글자를 뜻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28자 자모는 상형이요, 한 음절로 합자한 글자의 끝은 중국 고대 한자의 방패형을 본뜬 “字母象形而字倣古篆”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而’는 연결으로 ‘그리고’라는 전후 대등절을 있는 어조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sup>2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말을 표기한 곧 한자음의 음과 훈을 빌려 적은 이른바 차자표기에서 기원했다는 가정 아래 한글 자모의 기원을 고전체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ㄴ(隱), ㄷ(音), ㅂ(邑), ㅇ(應), ㅅ(品), ㅈ(處), ㅊ(字), 一(應), ㅍ(伊), ㅍ(牙), ㅍ(耶), ㅍ(於), ㅍ(興), ㅍ(五), ㅍ(要), ㅍ(由, 兪)’ 등으로 추론하고 있다. 홍윤표(2005:54~56) 교수는 ‘상형’은 기본 글자를, ‘자방고전’은 기본 글자 외의 글자를 만드는 원리로 보고 있으나 ‘象形而字倣古篆’의 전후 문맥을 파악해보면 자모의 기원은 분명히 상형이요, 한 음절의 글꼴은 고전체의 방패형이다.

이 기본적인 단락의 문맥해석의 오류로 인해 한글 자모 기원설이 전혀 불필요한 논의로 발전되어 도리어 한글 창제의 독창성을 희석시킨 결과가 아닐까? 한글 자모 창제의 독창성을 어떻게 하든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27) 김원중, 『한문해석사전』, 글항아리, 2013, p.1048.

태생된 것으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글 자모의 기원이 중국 고전 자에 있었다면 해례본 제자해에서 상형설과 가획의 원리나 그 예외에 대해 그렇게 정밀하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실록 기록에서 매우 분명하게 언문 28자의 낱글자는 상형의 방식으로 또 초, 중, 종을 합한 곧 음절구성 문자는 방패형인 고전(古篆)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문자가 방패형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한글 역시 단자 표의문자인 한자의 음에 1:1로 대응될 수 있는 글꼴을 만들기 위해서 초, 중, 종을 합한 방패형 문자로 만든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많은 성운학자들에서부터 ‘其字倣古篆’만을 가지고 한글 글꼴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다보니 온갖 억측이 생겨난 것이다. 그 다음의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는 뒷 문맥을 정확하게 해독하면 지금까지 제기된 한글 글꼴 기원에 대한 논의들은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5)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의 해독 문제

세종 28(1446)년 실록의 기록과 함께 《훈민정음》해례본 본문으로 실려 있는 어제 서문에 나오는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나·랏·말·쓰·미 中·둥·國·꺄·에 달·아 文·문·字·쥁·와·로 서르스 못·디아·니힐·씨)”라는 부분의 해석을 “(한자의) 국어음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정광, 2006:34)”라고 하여 “國之語音”의 부분을 “중국어한자음” 곧 ‘국어음(國語音)’을 한자의 동음(東音)으로 규정하여 “세종은 중국과 우리 한자음의 규범음을 정하기 위하여 발음 기호로서 훈민정음을 고안하였다.(정광, 2006:34)”는 것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실제로 한자음의 정리나 중국어 표준발음의 표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가

고유어 표기에도 성공한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훈민정음, 또는 정음으로 불리었고 후자를 위해서는 언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정광, 2006:36)”라는 논의는 이송녕 교수(1976:52)는 “훈민정음은 《동국정운》의 이해를 위한 연습장의 구실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한자음의 개신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많으며, 세종의 언어정책의 진의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가 의심될 것이다.”라는 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한글 창제의 기본 정신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을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시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우리 한자음의 표기도 우리말 표기와 함께 중요한 해결 과제였지만 그 과제의 선후문제를 판단하는 잣대는 예의에서는 전탁 표기 글자를 제외한 제한적 음소문자 언문 28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國之語音 異乎中國”에 대한 해석은 “국어음(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문자로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마치 한글 창제가 한자음 교정 통일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만일 한자음 표기를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언문 28자에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든 전탁자 6자를 제외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훈민정음》영역본이나 논문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한글 창제의 기본 정신이 한자음 표기법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남게 된다.<sup>28)</sup>

28) 방종현 저·이상규 주해, 『훈민정음통사』, 을지, 2013, p.423.

#### IV. 실록본과 《훈민정음》해례본의 변개

세종 25년(1443) 계해 12월 30일 《세종실록》과 제기된 문제 가운데 먼저 이승녕(1976:52) 교수의 “훈민정음의 자모 체계는 우리 현실 국어의 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동국정운》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장 구실을 하게 한 것이 라 볼 수 있다”와 같은 논의처럼 언문 28자가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거 위에서 이광호(2006:1397~1399) 교수는 심지어 해례본을 만든 이후에 예의를 만들었다는 추론<sup>29)</sup>도 제기하고 있으나 《세종실록》의 논거를 신뢰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민정음》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 제작과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 등의 운서 사업에 관여했던 유신들이 대거로 세종실록 편수책임자로 참여하여 실록을 완성하였다. 특히 문종 대에 주요한 훈신이었던 신숙주가 기주관으로써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사 작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회고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실록 기록에서 세종 25년 한글이 창제된 시점의 기사와 세종 28년의 기사가 순차적으로 기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정리되었는지는 확인할 사료가 없으나 세종 25년에서 세종 28년 사이에 실록의 기록과 《훈민정음》해례본의 완성 과정에서 포착될 수 있는 변개 과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세종 25년과 세종 28년의 실록 기록이 회고적 방식에서 동시에 기술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틈 사이에 나타나는 순차적인 창제 경과 과정을 해독해낼 필요가 있다.

29) 이광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본문(예의)’과 ‘해례’의 내용관계 검토」, 이병근선생 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 1. 실록에 나타나는 《운서》번역의 행방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불과 몇 달 뒤인 세종 26(1444)년 2월에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고금운회거요》의 번역을 명하였는데, 이 사업은 완성되지 못했다. 다만 이를 토대로 하여 세종 29(1447)년에 《동국정운》을 편찬하였다. 곧 《동국정운》의 운목 배열은 《고금운회거요》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운도의 배열 방식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 26(1444)년 2월 병신 조 실록에 보면 세종이 새로 창제한 정음을 가지고 《운회》를 번역시키도록 하명한 사실이 보인다.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 대군 이유, 안평 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예단하므로 상을 거듭 내려 주고 공역하는 것을 너그럽고 후하게 하였다.”<sup>30)</sup>

이와 같이 세종께서 《고금운회》를 번역하도록 하명한 것으로 보아서 언문 28자의 창제는 계해 겨울에 완료되었음은 의심 없는 사실이며, 이와 동시에 한자어 표기는 당시 핵심적인 당면 과제였을 것이다. 이 《운회》의 번역 과정은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 중에도 들어 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판각 장인) 수십 인을 모아

30) “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瑄, 敦寧府主簿姜希顏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揉, 安平大君瑢, 掌其事, 皆稟審斷。”, 《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16일.

각본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sup>31)</sup>

세종이 《운회》번역을 명한 직후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린 직접적인 계기는 이 운서 번역 사업이었다. 그런데 실록에 보이는 《운회》란 어떤 운서를 말하는 것인가? 박병채(1983:12) 교수는 세종이 명한 《운회》가 《고금운회거요》가 아닌 이유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세종이 번역하도록 명한 운서는 《홍무정운》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의 운도 7성과 악률 오성과의 대응(순음(唇音)-궁(宮), 후음(喉音)-우(羽))이 《고금운회거요》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시 세종이 번역하도록 명한 《운회》는 《고금운회거요》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일까?

《훈민정음》해례본과 《홍무정운》의 오음계의 배치는 차이가 있다. 곧 《고금운회거요》계열의 운도를 기준으로 만든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입술소리(唇)-궁(宮)’, ‘목구멍소리(喉)-우(羽)’의 오음계 배치로 되었지만 《홍무정운》계열의 운서에는 ‘입술소리(唇)-우(羽)’, ‘목구멍소리(喉)-궁(宮)’로 되어 있다.<sup>33)</sup> 이러한 사실은 이미 《훈민정음》창제 당시에도 운도의 통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그러나 풍토가 구별되고 성기 또한 따라서 다른 즉”이라 하였으며, 《동국정운》세문에서도 “대저 음에 같고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 따

31) “今不傳採群議，驟令吏輩十餘人，講習，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附會無稽之產諺文，聚工匠數，十八刻之，劇欲廣布其於天下，後世公議如何。”，《세종실록》세종 26(1444)년 2월 20일.

32) 박병채,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3.

33) 이상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한글』 제298집, 한글학회, 2012.

라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지방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풍기가 틀리고 풍기가 다르면 호흡이 다르니”라고 대응했던 것이다. 물론 중국의 운서 간에도 오음계의 배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해례의 행간 필사 자료에서도 운도 배치 문제를 제기하였듯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반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박성원의 《화음정음통석고》의 서에는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처음부터 아, 설, 순, 치, 후 등 성모의 음계와 합벽 등의 운모의 발음의 묘에 밝지 못해서 오음의 음계가 뒤섞였다. 그래서 궁음이 혹 우음이 되고 상음이 혹 치음이 되어 아직도 일정한 음운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언문이 둘로 갈라지고(일치하지 않음) 또 뜻에만 중점을 두고 음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至於我東, 則初不明其牙舌脣齒脣喉閣闢出聲之妙。故五音相混, 宮或爲羽, 商或爲齒, 尙無一定之音韻, 此實我東諺文爲二, 務於義而忽於音之致也。), 《화음정음통석고》서문.

라고 하여 《훈민정음》해례의 오음계 배치가 《훈민정음》해례본은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다. 곧 음양오행의 동아시아의 사상 체계로 만든 훈민정음의 제자의 원리를 밝힌 제자해에서 제시한 ‘순(脣)-궁(宮)’의 배합과 ‘후(喉)-우(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음을 유희도 《언문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sup>34)</sup>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행간 필사 기록에도 《훈민정음》해례의 오음계 배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곧 “원화운보와 신공은 후음을 궁토

34) 유희의 《언문지》(1824)년에서도 “또한 후(喉)음을 우(羽)라하고, 순(脣)음을 궁(宮)이라 하였으니,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又以喉爲羽, 以脣爲宮, 皆不通於理”라고 하여 《고금운회》의 오음계 배치를 비판하고 있다.

에 맞추었다(元和韻譜及神珙, 喉音爲宮土)”라고 하여 ‘후(喉)-궁(宮)’의 배합이 옳으며, 이어서 “운보와 심약과 신공은 순음을 우음에 맞추었다(韻譜及沈約神珙, 皆以脣爲羽音)”라고 하여 ‘순(脣)-우(羽)’의 배합이 옳다고 규정한 내용이다.<sup>35)</sup> 곧 오음, 오성, 오계, 오시뿐만 아니라 특히 율려와 성음의 이치를 성운학과 통합한 곧 전체를 하나의 원리로 일관하는 통합적 구조주의의 원리에서 오성과 오음(또는 칠성과 칠음)의 배합 원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훈민정음》창제 당시 세종께서는 원나라 북방음이 반영된 《고금운회거요》를 기준으로 오음과 오성을 결정했던 결과이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태종에서 세종에 이르기까지 궁중에서 《고금운회거요》를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세종에게는 매우 친숙한 운서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 이후 명나라에서는 심약의 《원화운보》를 기준으로 한 《홍무정운》의 운도에서 이들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집현전 학사들 사이에 이 운도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운회》번역 사업이 중단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국정운》사업과 함께 명나라 흠정 운서인 《홍무정운》번역 사업으로 한자음 표준화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5) ‘순(脣)-궁(宮)’, ‘후(喉)-우(羽)’로 배합한 저술로는 《절운지장도》의 <오음오성변자모차제예>, 《고금운회거요》, 《훈민정음》제자해가 있으며, ‘후(喉)-궁(宮)’, ‘순(脣)-우(羽)’로 배합한 저술로는 《절운지장도》의 <변오음예>, 《홍무정운》, 《사성통해》, 《훈민정음운해》등이 있다.

36) 심약의 《원화운보》 <오음지도(五音之圖)>의 “宮 舌居中(喉音), 角 舌縮却(牙音), 徵 舌拄齒(舌頭, 舌上), 商 口開張(齒頭, 正齒), 羽 口撮聚(脣重, 脣輕)”로 기술한 내용과 다른 점을 집현전의 신진학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2. 실록의 예의 이후의 변개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중국 성운학을 토대로 하여 운도를 중심으로 하여 횡으로 오음(오성)을 종으로 청탁을 근거로 하여 언문 28자를 제정하였다. 우리말 표기뿐만 아니라 조선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표기를 위해 제자해에서 초성 제자와 소리체계와 전탁과 병서 규정과 합자해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말 표기에서 우리말 한자음 및 한어음표기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의에서 《훈민정음》해례본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변개가 있었다.

첫째, 운도의 종도에서 청탁의 배열이 예의에서와 해례본에서 다음과 같은 배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37)</sup> 예의에 청탁(淸濁) 구분에 따른 글자의 배열이 ‘전청(ㄱ)-전탁(ㄲ)-차청(ㅋ)-불청불탁(ㅇ)’의 순서인데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전청(ㄱ)-차청(ㅋ)-전탁(ㄲ)-불청불탁(ㅇ)’의 순서로 바뀌게 된다.<sup>38)</sup> 변개된 부분의 일부인데 이 문제는 단순한 변개가 아니라 예의에서 한자음 표기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둘째, 초성 제자 원리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성의 배열순서가 예의와 달라졌다. 예의에서는 ‘아→설→순→치→후’의 순서였는데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후→아→설→치→순’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성

37) “又以聲音淸濁而言之。ㄱㄲㅈㅊㅅㅇ。爲全淸。ㅋㅌㅍㅊㅎ。爲次淸。ㄱㄴㅇㄹㅁ。爲全濁。ㅇㄴㅇㄹㅁ。爲不清不濁。ㄴㅇㅇ。其聲最不厲。”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38) 임흥빈,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이병근선생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p.1378.

39)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으로 배열하던 순서를 버리고, 소강철의 <초성경세수도>에서 배열한 순서인 ‘전청(ㄱ)-차청(ㅋ)-전탁(ㄲ)-불청불탁(ㅇ)’의 순서로 바뀌었다.

문(出聲之門)인 목구멍에서 입(聲之出口)까지 조음위치(point of articulation)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였다. 이 점은 당시 집현전 학사들이 현대 음성학적 조음의 원리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세종이 창제한 초성 17자의 배열 구도가 해례에 와서 약간의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의에서 해례본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개와 첨삭이 이루어진다. 우리말 표기와 한자음 표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예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君, 蚩, 快, 業’에 해당하는 음가 표기는 언해본에서는 ‘군, 꾡, ·꾡, ·업’이지만 《동국정운》한자음 표기가 확정되기 이전의 해례본에서는 ‘군, 꾡, ·꾡, ·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례본보다 3년 앞에 나온 예의의 한자음 표기는 언해본과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현대어로 해석할 때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언해본의 음가 표기인 ‘군, 꾡, ·꾡, ·업’으로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넷째, 예의에서 밝힌 언문 28자를 기본으로 하여 합자 방식에 따라서 해례본에 이르면 초성 기본자 17자를 포함하여 39자, 중성은 11자를 포함하여 25자가 보인다. 그러나 해례본에서 초성글자와 중성글자는 아래와 같이 64자의 글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한자음 표기를 위한 문자 운용의 방식의 방편이었다.

① 초성 글자

단일 초성 글자		ㄱ, ㅋ, ㅇ/ㄷ, ㅌ, ㄴ/ㅂ, ㅍ, ㅍ/ㅅ, ㅈ, ㅈ/ㅍ, ㅎ, ㅇ/ㄹ, ㄷ
복합 초성글자	각자병서	ㄱ, ㄷ, ㅂ, ㅈ, ㅅ, ㅎ, (ㅇ, ㄴ)
	함용병서	ㅂ, ㅅ, ㅈ, ㅍ/ㅅ, ㅈ, ㅅ/ㅂ, ㅂ
	연서	ㅂ, (ㅅ, ㅍ, ㅍ)

## ② 중성글자

소리체계		글자체계
단모음	·, ㅡ, ㅣ, ㅏ, ㅑ, ㅓ, ㅕ	단일 중성 글자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ㅣ계 상향모음
	ㅑ, ㅓ	ㅓ계 상향모음
	ㅑ, ㅓ, ㅕ, ㅗ, ㅕ, ㅗ	ㅣ계 하향모음
삼중모음	ㅑ, ㅓ, ㅕ, ㅗ	ㅣ계상향→ㅣ계하향
	ㅑ, ㅓ	ㅓ계상향→ㅣ계하향

《용비어천가》에서 여진어 표기를 위해 ‘처’와 같은 문자도 보인다. 해례본의 용자해에서도 고유어의 용례 94개를 들고 있다.<sup>40)</sup> 그러므로 예의에서 밝힌 언문 28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음소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한글 창제의 목적이 창제 당시에는 우리말 표기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다가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40) 용자례에서는 단음절 54개와 이음절어 40개 총 94개의 고유 어휘를 표기하는 실제적 용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초성 용례는 34개, 중성 용례 44개, 종성 용례 16로 당시 표기법의 시행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초성 용례는 예의의 자모 순서에 따라 ‘아-설-순-치-후’의 방식으로 배열하였고 우리말 표기에서 제외될 전탁자 6자와 후음 ‘ㅇ’가 제외되고 ‘ங’이 순음 위치에 추가되었다. 중성 용자의 예는 상형자(· ㅡ ㅣ)와 초출자(ㅏ ㅑ ㅓ ㅕ), 재출자(ㅑ ㅓ ㅕ ㅗ) 순으로 고유어 각 4개씩 중성 11자에 각각 4개의 어휘를 중성 제자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다만 중모음이었던 이자합용 14자 가운데 동출합용(ㅑ, ㅓ, ㅕ, ㅗ) 4자와 이자상합합용자 10자(·,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ㅕ, ㅗ)와 삼자 상합합용 4자(ㅑ, ㅓ, ㅕ, ㅗ)의 용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종성 용례는 16개 어휘의 예를 밝혔는데 예의의 ‘終聲復用初聲’ 규정과 달리 해례의 ‘八終聲可足用也’ 규정에 따른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순으로 각 2개의 용례를 밝혔다. 결국 고유어의 사용 예만 94개를 들고 있다. 이 용자의 예를 보면 한글의 창제 목적이 단순히 한자음의 표기나 외래어 표기보다는 고유어의 표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언류에서 고유어의 어휘만 제시한 것은 한글의 창제 목적이 단순히 한자음 통일을 위한 표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다섯째,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자음의 표기는 《동국정운》이 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차이를 보인다. 특히 -p, -t, -k 입성운미의 표기가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t’운미인 ‘鶯’을 ‘뵈’로 표기하였고 ‘-w’운미 글자인 ‘蚶’도 ‘꾸’로 ‘-j’운미인 ‘快’도 ‘쾌’로 표기하여 ‘ㅇ’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훈민정음》언해본에서는 해례본과 달리 지섭(止攝), 우섭(遇攝), 과섭(果攝), 가섭(假攝)과 해섭(蟹攝)의 ‘-j’운미에 ‘ㅇ’을 표기하고 진섭(臻攝)과 산섭(山攝)의 ‘-t’운미인 경우 ‘-ㄱㅇ’을 표기하여 입성운미를 3성 체계에 따라 표기하였다.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표기 방식은 예의에서 확장된 연구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언문 28자 창제 이후 한 음절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음절 표기 의식에 대한 상당한 변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성과 정음의 의식으로 우리말을 포함한 한자음 표기 방식으로 정착되면서 훈민정음(정음)이라는 의식으로 굳어진 것이다.

## V. 결론

한글 창제와 관련된 일차 사료는 세종 25(1443)년 계해 기사와 세종 28(1446)년 병인 실록 기사 이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세종실록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의 유의미한 논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료가 실록 기록이기 때문에 이 실록 기록의 문면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실록 기록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세종실록 찬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를 총괄한 이는 정인지이며, 동지관사 최항과 편

수관으로 성삼문,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편찬을 주관하였던 신숙주가 기주관으로 역할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해례본 제작을 비롯하여 후속적인 운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상당수의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세종실록에 실린 관련 기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록 소재 예의의 이본간의 변개는 글자가 누락된 것, 글자가 바뀐 것, 글자의 순서가 바뀐 것, 이체자로 쓴 것, 대용자로 쓴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상주문인 관계로 매우 정교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제안자인 세종의 초고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예의의 나타나는 글자의 이동의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편방점획 등의 제약이 덜 가해진 기록 문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세종이 제시한 예의의 원본에 더 접근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록본은 1차 사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실록본 예의가 해례본으로 발전하면서 일부의 변개가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실록본 예의가 조선 후기에 성운학자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음에 있다.

사료 검토의 방식으로 순차적인 접근을 할 때 세종 28년(1446)년 병인 9월 상한(上澣)의 기록인 “예의를 간략하게 드러내어 보이시며(略揭例義以示之)”를 근거로 하면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언문 28자를 ‘훈민정음’이라는 명칭까지 규정하고 언문 28자의 글꼴과 음가 및 그 운용법을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달에 언문 28자를 창제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세종 25(1443)년 이후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예시한 문서가 바로 예의 수고(手稿)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수고는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본을 만드는 지남이 되었을 것이지만 후에 일부 내용을 다소 변경된 후에 실록과 해례본의 본문으로 신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례본의 본문으로 전제가 된 실록본 예의를 원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종실록》의 실증적 근거를 존중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 가운데 1) 훈민정음 창제 일자와 창제자 문제, 2) ‘언문’과 ‘훈민정음’ 그 명칭, 3) 《훈민정음》해례본의 반포설, 4)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做古篆)와 한글 창제 기원설, 5)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의 해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세종 25년 겨울에 세종이 언문 28자를 창제 하였으며, 이를 해설한 《훈민정음》해례본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완성하였다.

둘째, ‘언문’은 ‘언서’와 함께 우리말 표기를 위한 제한적 음소문자 언문 28자와 이를 이용하여 쓴 서책이나 글을, 한자음 표기를 위한 정음 문자로서의 기능적인 명칭으로 ‘정음’이 사용되었다.

셋째, 조선조 문헌 기록상 《훈민정음》과 관련한 ‘반포(頒布)’라는 용어는 단 한 군데도 사용된 적이 없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나타난 ‘광포(廣布)’라는 용어를 본 따서 김윤경(1954) 교수이나 방종현(1946) 교수도 ‘발포(發布)’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반포’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쿠라 심페이(1946)는 ‘공포(公布)’라 하였고, 박승빈(1947)은 ‘영포(令布)’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반포 기념식을 공식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포’라는 용어로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종 25(1443)년 계해 12월 조의 실록의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기자방고전(其字做古篆)’의 ‘其字’는 초, 중, 종성으로 합친 곧 C+V+C로 구성된 음절글자를 말한다. 따라서 초, 중, 종성을 합한 한 음절의 글자 모양은 방패형으로 옛 전자(古篆)의 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의

그동안 난립된 어문 28자 기원설은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의 해독 문제는 한글 창제 정신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한글 창제 정신을 훼손시킬 정도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훈민정음 연구 결과는 많은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자 음표기 방식으로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근거없는 자기 비하적인 견해는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순차적 방식으로 사료를 검토하여 한글 창제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예의에서 해례본과 언해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청탁의 배열이나 오음의 음계 배열 차이와 종성 표기나 한자음 표기를 위한 상당한 변개 과정을 거친 계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강규선·황경수, 『훈민정음 연구』, 청운, 2006.
- 김언중, 『이형상의 <자학(字學)> 역주』, 푸른역사, 2008.
- 김완진,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1996.
- 김원중, 『한문해석사전』, 글항아리, 2013, p.1048.
- 김정대, 『외국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 연구』, 『국어학』43, 2002.
- 박병채, 『홍무정음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3.
- 박종국, 『훈민정음 종합 연구』, 세종기념사업회, 2006.
- \_\_\_\_\_,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82면, 1984.
- 방종현저·이상규주해, 『훈민정음통사』, 올재, 2013, pp.416-420.
- 안병희, 『훈민정음연구』, 서울대출판부, 2007.
- 유창균, 『‘상형이지방고전’에 대하여』, 『진단학보』29~30, 1996.
- 이광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본문(예의)’과 ‘해례’의 내용관계 검토』, 이병근선생 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 이상규, 『《훈민정음》영인 이본의 권점 분석』, 『어문학』100호, 한국어문학회, 2009.
- \_\_\_\_\_,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해례본』, 『기록인』23, 국가기록원, 2013.
- 이승녕, 『개혁국어학사』, 박영사, 1976, pp.15-16.
- 임홍빈,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이병근선생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p.1378.
- 정 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엔씨, 2006, p.24.
- \_\_\_\_\_,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언어정보』제7호,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2006, pp.5-38.
- 정연찬, 『해제 《월인석보》(제1,2)』, 『월인석보영인본』,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72.
- 정우영, 『《훈민정음》언해본 이본과 원본 재구에 대한 재론』, 『불교어문논집』제5집, 2000.
- \_\_\_\_\_, 『훈민정음 언해의 이본과 원본 재구에 관한 연구』, 『불교어문논집』제5집, 2000.
- 최종민, 『훈민정음과 세종약보』, 역락, 2013.
- 홍기문, 『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 1946.
- 홍윤표, 『한글이야기』 1~2, 태학사, 2013.

- 홍윤표, 『훈민정음의 ‘상형이자방고전’에 대하여』, 『국어학』46, 2005.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부록에 실린 ‘편수관 명단’을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 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Korean Repository* Vol. 1, 1892.
- I. Taylor, *The Alphabet*, 1883.
- J. S. Gale, *Tra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12.
- L. Rosny, *AperÇu de Langue Coréene*, 1864.
- M. Kiaproth, *Apercu de l'origine dles diverse écritures de l'ancien monde*, 1832.
- P. Andreas Eckardt, *Der 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 1928.
- Yi Ik Seup, *The Alphabet(Panchul)*, *Korean Repository*, Vol.1, October. 1892.

**Abstract**

## Review of the creative process invented Hangeul

Lee, Sang-Gyu

In this paper, Annals of three kinds of respect for empirical evidence on the issue, reviewing the meantime had been raised. 1) the date and invented Hunminjeongeum invented problems, 2) 'eonmun' and 'Hunminjeongeum' its name, 3) Hunminjeongeum event to announce the publication of commentary 4) The origin of the shape of Hangeul characters(象形而字仿古篆) and Hangeul invented origins, 5)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focusing on the decoding of the problem was investigated.

Two of the three kinds of Hangeul made in 1443. Hangeul is created containing the principles of the 1446 Hunminjeongeum jiphyeon in touch with scholars made. Eonmun silent as the name, the name written in the functional notation is the name for Hunminjeongeum promulgated after the book was made into a popular event that a record does not remain. Hangeul characters are 28 phonemes, but take advantage of this limited letter, you can record your voice in many languages is a negative character. Organization of Hangeul natgeulja mimic the look of the sound, but coupled with C+V+C syllabic characters and the whole of the Chinese imitated.

Key Word : Hangeul, Hunminjeongeum, Eonmun, syllabic characters

이상규

소속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950-5117 / 010-3812-5117

전자우편 : sglee@knu.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